

문선대

답보 벗어나 변혁의 한길로

5월 문학예술 선전 선동활동 소평

그동안 학내문예선전활동(이하 문선)은 그야말로 자족적이고 무계획적 측면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집회공간은 가장 일상적으로 대중과 접하고 학내 정치적 선전선동의 가장 열려진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집회 문선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그 실현방법을 찾아보지 못했으며, 총학생회에서 제기하는 당일당일의 행사에 수동적이고, 관성적으로 대처해 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급증하는 정치적 파장과 학생운동의 발전정도에 맞추어 여러 공간에서 문선의 이러한 파장과 한계들은 계속적으로 재출되었으나 그것 역시 한시적이고, 관성적인 문제의식에 그치곤 했다. 즉, 이러한 문제점은 학내문화파의 엄청난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 공간에서 요구되는 문선의 구조적 통로가 보장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5월 문선대의 문제의식 역시 여기서 출발하였다. 이 문제의식은 또한 전 정세의 급박한 상황, 즉 87년 6월 이후 최대 전민항쟁의 불초로 떠오르는 5월투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문선이라는 무기로 무엇을 해야하겠는가?”라는 소박한 문제의식들과 결합하여 5월 투쟁이라는 한시적 공간이나 각 문화파가 만나서, 문예선전을 준비하며 이러한 고민을 공유, 집중화 시켜내는 것, 즉 “요구되는 실천활동 속에서 대안을 건설하자”라는 제기 속에서 강렬사의 죽음에 있던 바

로 다음날인 4월27일, 먼저 준비된 문예 일꾼들이 각 단위로 제출하였던 것이다. 물론, 제기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서, 문선대체출의 풍부한 근거를 함께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과 각문화파 상황과 일정의 문제, 그리고, 문예선전 일정의 촉박함속에서 제민주적인 준비절차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미리 밝히면서 문선의 의의와 학내문선에 요구되는 몇가지문제를 말하고자 한 다. 문예선전이란 한마디로 문예적 내용을 가지고 대중속에 파고들

시켜야한다. 둘째, 집회공간 속에서의 대중의 의식상태와 결의정도, 문예작품이 연행되었을때의 정서변화를 면밀히 감지, 예상하고, 대중에 근거한 평가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대중속에 살아있는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 셋째, 학내 문예운동의 뿌리깊은 문제인 아마추어리즘을 최대한 극복해야 한다. 기간 문선이나 문예공연원에서 보았던 각문화파의 비전문성을 최대한 지양하고 전문화 해내야 한다. 위 세가지가 이번 문선뿐 아니라

하였다. 그리고, 당일당일 공연의 평가는 대중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후공연의 내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초기의 개인적, 우연적 참여가 문선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조직적 참여로 확산되어 시와 노래만으로 진행하던 것을 춤(연기)도 함께 결합하여, 각 투쟁일정에 Mayday문선공연, 9, 10, 17일 자주집회 총력기 집회공연등을 가졌다. 이번 문선속에서 학내문예동아리가 안고있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살

이것은 관성적으로 활동해오던 학내 문예활동가들에게 좋은 경험이 아닐수 없다. 또 하나의 성과는 기능성있는 창작역량의 개발과 기술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의 확보이다. 예를들면 이번 5월 문선은 일상활동속에서 자기역량을 훈련해 오지 못한 문예활동가들에게 창작-연회에 이르는 과정의 강도높은 훈련과정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몇 효과적, 기술적인 문제에까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5월 문선대의 활동속에서 지속적 대안의 모색을 하고있음은 가장큰 성과이자 과제이다. 즉, 서두에 제기되었던 초보적 문제의식이 금번 5월 문선으로 논의의 틀, 실천의 틀을 확보하고 문예선전전략을 건설해내는것으로, 학내 문예운동의 오랜 담보상대를 깨고, 소질있는 한명의 문예활동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교육하고 키워내어 요구되는 문선 문예활동가가 먼저 준비하는 학내의 모범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 학내 문화파 동지들의 많은 고민과 논의를 기다리며, 새벽까지 창작과 연습으로 열성을 다하신 탈반, 노래아들, 한민문화회, 기타단대노래대 동지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지난9일 노천극장에서 가진 집회공연 '일어나라 열사여' 중

출패 '불림' 문화팀방

‘지배문화보다 우월한 노동자 문화 건설’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 맹활약하고 있는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이하 노동연)산하 춤패 ‘불림’을 찾아갔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불림은 25평짜리 2층홀을 연습실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벽면 한쪽을 장식한 큰 거울, 카세트, 연습복 등을 보면서 그들의 활동을 실감했다. 1985년 민중과 함께 호흡하며, 8명의 힘이 될 수 있는 춤문화를 만들어내고자 창단된 춤패 ‘불림’은 현재 6명의 분과원들이

다. 지난해에는 문예운동전반에 ‘사전기획제’를 제안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골리앗·크레인’을 기획, ‘전태일 추모문화제’공연과 현장순회공연을 가졌다. 올해는 이를 다시 개작해 지난 4월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한 바 있다. ‘사전기획제’란 대규모 공장및 현장에서의 공연을 지향함으로써 작품의 현실성을 높이고, 충분한 작품준비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노동자예술을 창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 노동자 삶과 의지 대변 사전기획제 등 실험작업

활동하고 있다. ‘불림’ 춤꾼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지상주의라는 부르조아적 예술관에 젖어있는 기존의 무용현실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노동자계급의 춤언어를 획득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실험작업을 해왔다. 그들은 첫공연으로 86년 노동자의 삶을 소재로 한 ‘불꽃으로 타올라’를 선보였으며,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이 땅의 춤을 위하여’를 87, 89년 공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내고, ‘불림’의 자체역량을 키워왔

다. 그 성과를 지극당장 결론지 어버리기보다는 춤, 연극 등 부문별 활동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노동해방으로 향하는 투쟁의식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과 직접 삶을 부대끼며, 그들의 의지를 춤으로써 대변하는 ‘불림’의 몸부림은 이땅 노동해방의 길에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금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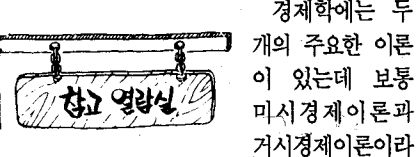


◇사전기획제에 따라 기획된 ‘노동자·골리앗·크레인’을 작년에 이어 지난4월 서강대 메리홀에서 공연하였다.

## 양적 증가 불구, 구체적 논의 통로 부재 대중정서 근거한 문예 전문화 이뤄야

여가, 정치의식을 포함한 그들 삶의 내용을 진일보하게 하며, 집회장에 나온 학우들의 분노와 결의를 집중시켜 정치적 각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번 학내문선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긴박한 정세속에서 또한 학내문예역량과 기타의 조건속에서 극대화 시켜내기위해 우리는 주요하게 몇가지를 사고할 수 밖에 없었다. 첫째, 하나의 매체를 사고하면, 제예술작품을 표현, 배치, 결합

과 일반적으로 학내 문선에서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점이라 판단하고 이러한 기초에 근거하여 5월 문선은 진행되었다. 그러면 구체적 활동내용을 살펴보자. 문선활동은 노래와 시(멘트), 춤(연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에 제기한 세가지의 활동기조 속에서, 각매체의 대표가 공연 기획단을 형성하고 각매체의 결합을 중심으로 창작해 나갔으며, 연회자는 전문성과 기능성의 제고를 위해 별도대 형식으로 구성



경제학에는 두 개의 주요한 이론이 있는데 보통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것이다. 미시이론과 거시이론(가격이론과 소득이론)은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 이론으로 자동차의 두바퀴와 같은 것이다.따라서 미시경제는 특히 가격이론이라고 불리운다. 미시(Micro)란 말은 ‘작다’는 뜻의 회랍어 ‘mikros’에서 온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격이론이 하찮거나 중요하지 않은 이론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시경제학에 관한 학문체계가 거시경제학에 관한 것보다 더 방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미시경제의 역사는 한계혁명과 주진자인 제본스(W.S.Jevons), 맵거(C.Menger), 왈라스(Leon Walras)나 그 이전의 밀(J.S. Mill), 리카르도(D.Ricardo)와 스미드(A.Smith)에 까지 소급할 수 있어 소득분 석의 거시이론보다 훨씬 오랜 것이다. 거시경제가 총생산수준의 결정을 설명해

### 미시경제

### 총생산의 구성·배분 설명

주는 반면에 미시경제는 총생산의 구성및 배분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다른점이다. 미시경제는 주로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경제주체인 가계나 기업이 어떤동기로, 어떤 법칙에 의하여 행동하며, 그 활동의 결과 여러가지의 재화나 용역 및 생산요소의 가격과 수급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다시말하면 최소한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며 생산활동의 열매가 어떻게 분배되는가가 그 중심문제라 된다. 이것은 결국 그 경제의 모든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과 수급이 결정되는 문제와 관련된다. 케인즈혁명이후의 시기와는 역으로 오늘날 미시경제의 중요성이 다시 고조되는 것은 소비자-기업-시장-가격등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문제들이 경제행동-경제현상의 상호연관되는 도구로 이용되며, 특히 국제경제학, 재정학, 금융론등 국민경제학의 여러용역 분야의 기초이론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시경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없이 사회과학분야를 공부하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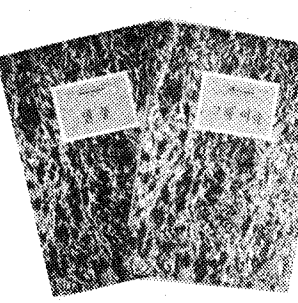
김 성 수 (사회대교수-경영학)

극단 ‘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오후5시30분 AV센터2층에서 제8회 Workshop 공연을 갖는다. 황석영원작의 소설 ‘한씨연대기’를 원기현(신방·3)이 새롭게 각색·연출한 이번 공연은 가정대화영화, 정경대화영화 후 원으로 열린다. ‘한씨연대기’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한 지식인이 강대국의 이데올로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강대국에 침탈당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22일부터 AV센터에서 “태” 한씨연대기 공연

전태일문학상 발표회

“그해 여름”과 “열풍”



전태일문학상 20주기 기념 ‘제3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작품집 ‘그해 여름’과 ‘열풍’이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우수작인 장편소설 ‘그해 여름’은 마창지역의 노동자들

이 회사와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87년 6월항쟁에 이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에 나서게 되는 전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기존의 노동소설이 보여 주었던 주제의 협소함을 극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부문 우수작인 ‘누가 나를 이 길로 가라하지 않았네’(조호상), ‘노동자가 기계를 만나 눈물 흘릴 때까지’(오철수)는 실제로 있었던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를 장시로 쓴 것이다. 김서정의 ‘열풍’과 김재호의 ‘다시 살아오는 날’은 각각 농민과 노동자의 현실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단편소설이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투쟁을 그린 ‘굴종의 삶을 떨치고’(이상식), ‘자본론’을 읽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쓴 ‘자본수필’(박윤배) 등이 보고문학부문 우수작이다. (도서출판 세계, ‘그해 여름’ 14천2백원, ‘열풍’ 14천5백원)

우리의 투쟁을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온 국민이 거리에 나섰던 지난 18일. “폭력정권 살인정권 노태우정권 퇴진하라!” “빠바바반.....” 우리를 막아선 경찰의 무차별한 최루탄 난사로 거리는 온통 뿌연게 되었고 호흡조차 힘들정도의 최루탄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은 눈물꽃물 범벅이 되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되었다. 바로 그때, 양복차림의 한 아저씨가 내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 주시며 하신 말씀은 오늘 또 다시 나의 두주먹을 불끈 쥐게 한다. “노태우가 물러날 때까지, 절대 지지치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하네” 학우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가두투쟁, 최루탄 가스로 인한 육체의 피로와 이후 구체적 전망의 부재로 인해 마냥 지친 모습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학우 여러분! 우리는 4월26일 이후 계속적인 대규모 국민대회를 통해 서울에서 전국으로, 5만에서 30만으로,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확산시켜 뱉으며 이제는 전국민이 노정권의 퇴진을 하나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제2의 6월 항쟁을 일구어 내느냐 마느냐는 바로 우리 청년학도의 가열차고도 계속적인 투쟁에 달려있습니다. 국민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운동의 선봉

서울지역대학신문 기자연합